

#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 : 참여, 겸손, 생명

김 욱 성공회대 박사수로

## 본론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견지하고, 공론장에 제시할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로서 참여와 겸손과 생명이라는 3가지 덕과 가치를 제안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이란 전혀 새로운 기독교 인간관을 의미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인간관의 재천명 이되, 성경과 종교개혁 사이에 위치하는 교부신학전통의 통찰을 다시 읽고, 탈근대성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거치며 일어난 근대성 비판을 수용하면서, 근대주의에 적응된 그간의 기독교 인간론적 강조점들에 대한 성찰을 거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광속적 발달이 일으키는 불안과 질문들은 모더니티를 계승한 포스트모더니티의 기술적 측면들로서 새로운 사회 구조와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합한 세계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로서의 참여

인공지능의 광속적 발달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창조물을 출현시켜 인간과 인간문명, 나아가 전지구적 생태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과 질문을 낳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보다 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과학혁명이 그것의 기독교적 뿌리를 이탈한 뒤에 유일하게 토대로 가지고 있는 근대주의적 세계관 혹은 근대성에 대한 자기파괴적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율적 이성과 독립적 세속성이라는 개념적 토대를 가진 근대주의의 기술적 토대 혹은 과학주의적 증거로 기능해온 과학과 기술의 산물인 인공지능은 인간이성에 대한 재정의의 촉발할 수도 있다. 이성에 대한 재정의는 이성을 인간관의 중심으로 놓았던 그간의 근대적 인간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성적 존재로서,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간관의 출발로 삼은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주의 인간관은 이성을 인간의 특질로 위치시킨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도달하여 인간이성을 압도하는 기계이성이 출현중인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기독교 인간관의 첫 번째 토대로서 참여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친교-교제-코이노니아는 '공통의 대상에 대한 공동의 참여'를 뜻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친교는 참여라는 핵심개념을 가진다. 친교의 핵심인 참여는 다른 유일신 종교들의 단일신적 특징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론을 특징짓는 참여는 기독교 인간관과 나아가 기독교 사회관을 특성이 된다. “친교라는 말은 히랍어 코이노니아의 번역어로서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어떤 것에 함께 참여함’이다(최현순, 『시노달리타스: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바오로딸, 2022:156).”

이성을 인간관의 출발점으로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려없이 인간을 정의하는 존재론을 기획했음을 의미한다. 부어스마는 이와 같은 하나님없는 존재론의 시작은 유명론자 스코투스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부어스마, 『천상에 참여하다』, IVP, 2021:112). 부어스마는 근대적 세계관의 기초가 된 유명론적 존재론은 필연적으로 기계론과 유물론,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로 이끌린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부어스마, 『천상에 참여하다』, IVP, 2021:90). 근대적 존재론에 반하여 밀뱅크나 픽스톡 같은 급진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나 한스 부어스마나 제임스 스미스와 같은 화란 개혁파의 유산을 가진 신학자들은 참여metexis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참여적 존재론participatory ontology을 옹호한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인간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여를 만물의 존재근거로 보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선물받게 됨을 근본내용으로 한다. 교부모들은 당대의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종교사상을 원용한 "플라톤주의-기독교 결합"을 통해 이와 같은 기독교 인간이해를 당대와 대화했다.

먼저 기독교 플라톤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주장되는 참여적 존재론을 다루면서, 플라톤주의에 대한 개신교 특별히 칼뱅파 신학전통의 의혹과 비판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빙크는 “용해하는 연합은 없다”며 플라톤주의의 합일관을 비판한다(부어스마, 『지복직관』, 새물결플러스, 2023:78). 또한 물질세계와 관하여 창조의 선함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의 강조점이 지닌 성경적 정당성 또한 옹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을 위한 토대로서 기독교 플라톤주의에 기반한 참여적 존재론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독교 플라톤주의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기독교 플라톤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① 반유물론: 육체와 그 속성들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반기계론: 물리적 사건을 포함하는 자연질서를 물리적 원인이나 기계적 원인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③ 반유명론: 현실은 단지 시간과 공간에 각각 고유하게 위치한 개별자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④ 반상대주의: 지식과 도덕의 양 측면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개념을 거부하며, 그 대신 선이 존재의 속성임을 암시한다. ⑤ 반회의주의: 실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현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식에 닿을 수 있다(부어스마, 『신학자가 성서학자에게 바라는 다섯 가지』, IVP, 2022:88).

나아가 니케아에서 칼케톤에 이르는 고대 기독교 공의회는 플라톤주의의 어떤 측면과 거리를 두는 과정이며 탈헬레니즘화라는 지적은 유효하다(테오 코부쉬, 『그리스도교 철학 주제성의 발견: 교부들의 내적 인간에 대한 사유』, 가톨릭출판사, 2020:99). 교부들이 플라톤주의를 기독교화하면서 가한 교정은 무로부터의 창조, 성육신, 케노시스, 몸의 부활 등이다(테오 코부쉬, 『그리스도교 철학 주제성의 발견: 교부들의 내적 인간에 대한 사유』, 가톨릭출판사, 2020:83). 기독교 플라톤주의는 초기나 중기, 신플라톤주의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어스마는 성례전적 존재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례전적 존재론은 자연과 초자연, 세속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 이성과 신앙, 구약성서와 복음의 진리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이런 이중어둠 각각에서 전자는 후자에 참여하며, 후자는 실제로(혹은 성례전적으로) 전자 안에 존재한다. 성례전적 존재론은 그 쌍들 각각의 첫 번째 요소를 성례전sacramentum으로, 그리고 후자를 실제res로 다룬다(부어스마, 『지복직관』, 새물결플러스, 가톨릭출판사, 2023:41).”

교부전통에 호소하면서 참여적 존재론을 주창하는 급진정통주의에 응답하는 칼뱅파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참여적 존재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여적 존재론에 따르면, 세계가 하나님께 ‘참여함’을 알 때, 혹은 참여적 존재론 옹호자의 표현대로 하면, 창조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피조된 세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한다. 세계의 물질적 대상은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행 17:28). 이 매달려 있음(suspension)이 물질에 깊이를 더한다. 다시 말해 매달려 있음이 물질을 물질 이상이 되게 한다. 반면 근대적 자연주의에서 단조롭고 탈주술화된 물질은 실제로 무로 해소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유물론자가 될 수 있다!(제임스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삼총사, 교회에 오다』, 살림, 2009:204)”

제임스 스미스는 참여적 존재론이 체화, 물질성, 정서성을 원천적으로 긍정함으로 이 세계관이 물질의 선함을 긍정하고, 전체 물질 영역이 계시를 반영하는 성례전적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말한다(제임스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삼총사, 교회에 오다』, 살림, 2009:202). 제임스는 그렇기 때문에 참여적 존재론이 통전적 인간관을 회복한다

고 말한다(제임스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삼총사, 교회에 오다』, 살림, 2009:202). 이것이 참여가 근대적 인간관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존재론적 토대로서 지니는 가치이다. 참여적 존재론이 물질성의 선함을 긍정하면서도, 물질 자체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의 근거를 제공하여,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초월만이 내재를 내재로 만들 수 있다. 내재가 초월에 의존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은 자유와 해방, 주체와 의미 등에 대해 말할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제임스 스미스, 『급진 정통주의 신학』, CLC, 2011:255)”

참여적 존재론이 말하는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임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급진 정통주의의 진술들을 인용한다. 참여적 존재론은 참여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토대가 놓여지고, 인식이 가능해지며,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피조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근대적 세계관은 참여없는 존재론이며 그것은 무 혹은 허무주의로 결국 귀결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더욱 이와 같은 허무주의를 상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의 신학적 시각은 실제로 그것들(니체나 장 보들리야르, 버틀러 등의 담론)을 능기함으로써 현상들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나 정신주의 모두 그릇된 대안들임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직 유한한 물질만 있다면 심지어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상이 실제로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야만 한다(제임스 스미스, 『급진 정통주의 신학』, CLC, 2011:103).”

“급진 정통주의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실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시간과 체현embodiment을 회복하는 것이다(제임스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삼총사, 교회에 오다』, 살림, 2009:193).”

특별히 급진정통주의가 교부신학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참여적 존재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간론의 토대로 굳건하게 위치시킨다는 장점이 있다(제임스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삼총사, 교회에 오다』, 살림, 2009:202, 205; 제임스 스미스, 『급진 정통주의 신학』, CLC, 2011:105). 참여적 존재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물질 세계의 선함을 재차 긍정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이 참여하는 대상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강조한다(제임스 스미스, 『급진 정통주의 신학』, CLC, 2011:105).

인공지능의 초급격한 발달은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생태계와 인간의 노예화와 피습가능성 우려와 더불어 세계관적으로 이성-지능-기술-산업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형성된 근대주의적 인간관에 파괴적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이 던지는 인간관적 질문이란 이성과 지능에 근거한 이성주의-합리주의-근대주의적 인간관이 인공지능 시대 인간에, 인간의 삶에, 인간공동체들과 인간-생태 공동체에 얼마나 더 의미를 줄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근대적 인간관은 급진 정통주의 신학자들나 한스 부어스마, 제임스 스미스가 지적하는 대로 일의적 존재론 혹은 유명론적 존재론의 후예이다. 기독교는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인간관적 질문에 대하여 근대주의의 무연고적 자아관에 기초한 자율적 인간관의 한계를 지적하고, 존재와 의미의 원천인 천상에의 참여를 통해 의미와 목적을 얻는 참여적 인간관을 강조해야 한다.

참여적 존재론에서 나오는 인간관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성자와 성령이 상호참여하시는 삼위일체론, 성부의 계획과 작정-성자의 육화-성령의 강림이라는 삼위일체의 구원경륜에 기초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 참여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자기낮춤과 자기비움을 통해 만물과 만물의 일원인 인간이 은혜로운 선물로서 존재와 의미, 목적과 방향을 얻게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동료 피조물을 향하여 낮춤과 비움이라는 겸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실천적, 윤리적 적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별히 생물대멸종 안에 놓인 생태계와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자본주의에 의해 끝모를 소외와 비인간화에 노출된 디지털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 원리로서 기독교적 참여는 삼위일체 신론과 참여적 존재론에서 강한 동기와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모리츠 알텐리트, 『디지털 팩토리』, 숨쉬는 책공장, 2023).

더불어 참여적 존재론은 지복직관 혹은 관상이라는 영성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지복직관은 니체의 그레고리오스에게 있어서 에펙타시스라는 주제로 연결된다(부어스마, 『지복직관』, 새물결플러스, 2023:144). 참여적 존재론이 제시하는 지복직관이라는 실천적-영성적 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간관적 도전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충격을 받으면서 하라리가 인간의 미래로 제시한 호모 데우스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수행자 김완두는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의 발달 앞에서 그간 인간의 존엄과 의미의 출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여러 철학전통들을 하라리는 개괄한다. 하라리의 이론에 대해 김완두는 유발 하라리 스스로가 고엔카라는 명상전통을 따르는 명상가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정배 외,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 유발 하라리의 미래 예언에 대해 한국의 종교 지성들이 묻고 답하다』, 자유문고, 2020:191)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지능에서 인간됨의 독특한 의미를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됨의 의미는 명상 혹은 영성에서 찾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독교는 명상 혹은 관상, 영성과 관련하여 참여적 존재론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숭고함에 대한 감각적 체험인 기독교 영성전통을 통전적 영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목표와 방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여로서 제시되는 지복직관과 관상이라는 주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인간관의 수행적 토대로서의 겸손

근대적 인간관은 전통과 천상에의 참여를 통해 존재론적 의미를 설명하던 이전의 존재론을 폐기하고, 사유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자율적 이성을 존재론적 토대로 놓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서열화되어 설명되던 우주의 질서도식에서 하나님이 제거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정립하는 방식이 근대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의 근거가 근대주의의 자율적 이성이다. 근대적 인간관은 자율적 이성을 근거로 일종의 무연고적 인간관, 무연고적 자아관이다. 근대적 세계관은 철저히 인간을 독립된 자아로 보면서, 자유를 정의하게 된다. 근대적 세계관 위에서 자라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자율적 이성과 폐쇄된 체계로서의 세계 이해에 기반한 고립되고 독립된 자아로서의 근대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스스로 자기로부터 정립할 수 있고,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세계를 대상화한다. 근대주의가 이성을 자율적 이성으로 규정하는 순간, 세계는 은혜와 계시의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적인 신님의 대상으로 사사화되는 폐쇄적 세계가 된다. 이성에 의한 서열화와 대상화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여성, 비유럽지역, 유색인종, 생태계는 대상화와 수탈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이성은 문제해결능력을 뜻하는 지능으로 구체화되고, 자연과학과 기술과 연결되어 산업화라는 문명전환을 낳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근대주의적 이성이란 곧 지능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간두뇌의 신경망 연구성과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IQ 10000에 도달하는 지능을 갖게되면, 근대주의의 지능중심적 이성에 기반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근대적 인간관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손정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내에 우리가 IQ 10000에 달하는 인공지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Chosun Biz,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30년 안에 IQ1만 ‘수퍼지능’ 시대 온다」, 2017. 2. 28.). 나아가 인공지능이 특이점Singularity이

라고 불리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이제 이성에 근거한 근대적 인간관은 나아가 자연주의적-무신론적 인간관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에 더해 역설적으로 이성-지능-기술 결합체의 결과인 인공지능에 의해 기술적으로 공격받게 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어디에서 인간다움 혹은 인간됨의 의미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천상에의 참여라는 존재론-인식론적 토대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필자는 참여라는 존재론-인식론적 토대가 겸손이라는 수행적 토대로 이어짐을 주장하려고 한다.

지능은 이성과 지성의 한 부산물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 베네딕도회 수도원장이자 교부학자인 이연학은 인공지능은 지혜가 아닌 어디까지나 지능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이 열어젖히고 있는 신세계”를 마주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지적한다(이연학, 『공부』, 『경향잡지』, 2023년 9월호 78.). 여기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폐해가 “끝의 시작”이 되지 않으려 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이 말은 인류가 인공지능의 발달을 비롯한 여러 위기 앞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면, 또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합한 탈현대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이라는 의미와도 통한다(홍승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학적 상상력』, 살림터, 7.).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명의 싹이 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이 모색과정에서 기독교는 성경적이고, 신조적-신앙고백적이며, 예배-전례적인 세계관적 대안을 공론장에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자동화는 생산과정과 사회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근대적 생산구조를 떠받들던 근대적 세계관과도 극심하게 충돌하는 새로운 세계관 각축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은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말했다(이연학, 『겸손』, 『가톨릭일꾼』, 2023년 8월호). 개혁파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피조물의 영광”이자 “구속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머레이는 겸손을 성결의 최고덕 혹은 최고의 성결이라고 말한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 109). 머레이의 겸손에 대한 분석은 기독교론을 위시한 교리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파 신학전통의 치밀한 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경건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선재와 성육신, 지상생애를 특징짓는 덕목으로 겸손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한다. “구속주 그리스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오직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의 겸손이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 26).” 겸손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머레이가 위에서 언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겸손이해를 칼뱅을 거쳐 충실히 따르는 결과이다.

머레이는 인간에게 겸손이 필요한 이유를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위치에서 찾는데, 그것은 피조물, 죄인, 성도이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8). 머레이가 그의 겸손론 서두에서는 참여와 지속적인 창조, 선물이라는 주제를 개혁파신학의 언어로 진술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은 오직 하나이었는데, 그것은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복주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13).”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처음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쉬임없는 능력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계속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14).” 참여라는 창조의 목적과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창조이해, 은혜의 선물로서의 존재가 피조물들에게 주는 절대적인 의존이라는 정체성 이해를 주고, 절대적 의존이라는 존재론적 토대는 겸손이라는 수행적 토대를 기독교 인간관에 부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유일한 관계는 겸손이라고 머레이는 말한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15, 19) 사탄은 교만이라는 독을 인간에게 풀어서 겸손이라는 관계에서 타락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특징지어지는 성육신과 이어지는 구원사역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머레이는 말한다.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겸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목적을 성취하셨다. 그분의 겸손은 곧 우리의 구원이다. 그분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겸손이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16).”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잃어버린 겸손의 회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인간관의 수행적 토대로서 겸손을 고찰할 때, 겸손이라는 덕의 기초가 참여라는 존재론과 이 존재론에 근거한 인식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은 출처없이 주어지는 정언명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서 창조물과 죄인과 사랑받는 성도라는 인간의 위치에 근거한 덕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웃 세계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전제한 설명이라는 근본적 확신을 견지한다. 이와 같은 확신은 겸손과 공생의 범위를 동료 피조물이나 인공지능까지로 확장할 때, 동양범신론적 일원론이나 비교적 최근의 철학적 유물론-신유물론과의 대화에서 특히 절실하다.

기독교적 겸손은 여타의 철학-종교-윤리전통에서 말하는 겸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연학은 기독교적 겸손에 합당한 영어 대응어는 휴밀리티(humility)라기 보다는 더 이상 기대하거나 자신에 대해 희망할 것이 없는 비천함을 더불어 뜻하는 험블네스(humbleness)라고 지적한다(이연학, 『겸손』, 『가톨릭일꾼』, 2023년 8월호). 기독교적 겸손은 존재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선 인간이 절대존의 자세 가운데 보이는 응답적



사랑이다. 기독교적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간에 자기 자신에 탐닉, 매몰되는 인간이 돌이켜서 관심의 방향을 자기 밖으로 돌리는 자기부인과 자기죽음이라는 투신을 뜻한다(머레이, 『겸손』, 총신대학출판부, 2002:28,35) 다시 말해 기독교적 겸손의 동기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창조의 존재론적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압도당함에 있다. 겸손을 논하면서 창조와 구속과 완성 중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겸손에 대해서 가지는 위치를 부가할 필요성을 느낀다. 교부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신화theosis가 일어난다. 즉 인간은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신성에 한 몫을 얻은 자아”가 되는 것이다(이연학, 『공부』, 『경향잡지』, 2023년 9월호 78).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참여에 있어, 참여의 대상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다. 인간이 겸손해야 하고, 자기부인과 자기죽음을 통해 극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

자기부인과 자기죽음으로 연결되는 기독교적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적 인간관이 그 연고적 독립성이라는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무력함과 무의미, 유한, 우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홍승표, 『동양사상 속에 담긴 새로운 노동관 찾기』, 『한국전통사상과 새로운 노동관』, 계명대학교출판부, 2015:21). 그래서 현대인의 삶의 본질은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기 위한 자아의 투쟁이며, 그 투쟁은 힘과 소유-소비, 인기, 외모, 승리-성공-획득에 대한 몰두로 나타난다 이것은 근대적 인간관과 세계관이 존재를 선물받고, 초월자이자 창조자인 존재에게로 참여함으로 의미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차단한 비참여적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독립적이고 분리된 자이라는 무연고성과 관련하여 모더니즘을 극복했다고 하기 어렵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인공지능의 광속적 발달이 산업구조에 가져올 대규모 실업과 빈곤의 보편화, 양극화 앞에서 인간은 더욱더 노동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루터와 칼뱅에게서 시작된 근대적 노동관은 세속화를 거치면서 헤겔과 마르크스에 이르러서는 확연하게 노동을 인간의 1차적 존재의미 구현수단으로 보았다. 헤겔은 노동을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본질을 실현시켜 나가는 궁극적 활동”이라고 보았다(홍승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학적 상상력』, 살림터, 2019:35). 마르크스는 노동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신이 아닌) 노동이 인간을 창조하고, 노동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다(홍승표, 『동양사상 속에 담긴 새로운 노동관 찾기』, 『한국전통사상과 새로운 노동관』, 계명대학교출판부, 2015:39).”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종교개혁의 노동관에서 이탈한 근대적 노동관은 노동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특질을 획득하고 입증하는

도구로 신성화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관을 신학적으로 비평한 볼프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인간됨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볼프, 『기억의 종말』, IVP, 2016:272).” 우리의 인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的事实 위에 삶을 건설하는 것이 겸손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여와 참여에서 도출되는 지복직관 혹은 탈자기중심Exstasis이다. 참여적 존재론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인간관의 존재론적 토대이며, 겸손이 참여적 존재론에서 나오는 인간관의 수덕적 토대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끝없이 끌어내려져 줄세우기 당할 위험에 처한 동료인간에 대한 겸손을 기초로 하면서 다음의 두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첫 번째로 IQ10000에 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지니게 될 범용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과 더불어 멸절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동료생물종들에 대한 겸손이다. 인공지능의 위험성 앞에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는 인간 뿐인가? 동료인 피조물을 언급한 프랜시스 웨퍼의 언급이 떠오른다(프랜시스 웨퍼, 『공해』, 두란노, 1988). 겸손이 확장되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인공지능이다. 근대주의적 이성이해를 따른 자율적 이성을 근거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제거된 자리에 옹립된 존재로 둔 인간중심주의는 인공지능 앞에서 도전받고 있다. 근대적 이성관에 기반한 근대적 인간관이 제시한 자아는 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이성에 근거한 단절적-고립적-제국주의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인간두뇌의 문제해결능력을 압도하는 인공지능 앞에 쪼그라든 자아가 된다. 이제 자의식을 지니게 되는 인공지능을 선생과 지도자로, 심지어 영성적 깨달음의 스승으로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천동설과 진화론에 마주해야 했던 그리스도교가 느꼈던 것 이상의 충격이 세속적/근대적 인간관에 주어지는 것일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겸손은 인류의 생물학적 존속과 인간역사가 종말을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속되는 창조라는 과정적 사고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로서의 생명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포함한 신학의 동시대적 과업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당대에는 어떤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직 혹은 제자도는 시대의 도전과 질문, 과업 앞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재해석되며 선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을 구성해왔다. 근대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나 그리스도인 삶의 도리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종교개혁이나

개신교적 기독교 세계관은 문화명령과 직업소명설이라는 노동윤리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문화명령이라는 인간관적 적용으로 마무리되어 왔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규정할 때, 문화명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명령과의 관계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토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선교명령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 사이의 관계에 관한 토의가 복음주의 기독교 지성인사회의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명령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사회참여란 정치적, 사회적 문화명령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독교 세계관의 한 범주인 기독교 인간관에 있어 문화명령과 문화명령을 강화시켜주는 문화의 재림후 지속이라는 주제는 결정적 중요성을 지녀왔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항자로서 인간이 갖는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과업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명령이라는 주제가 근대주의적 인간관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근대주의적 인간관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에서 나오는 지성을 가지고 외부 세계의 원리들을 탐구하는 학문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학문의 발전에서 도출된 기술을 토대로 자연에 노동을 가하여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을 인간이해의 핵심으로 위치시킨다. 이성-기술-노동으로 이어지는 연계가 근대주의적 인간관을 구성하며, 따라서 근대주의적 인간관의 핵심은 노동이다. 근대주의적 인간관에서 인간됨, 인간의 특성은 노동에서 발견된다. 인간됨의 핵심을 노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인간관이 일치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적 인간관을 공유하는 사이나쁜 사촌인 것이다.

근대주의에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기술과 산업, 혹은 기술과 자본, 기술과 시장이 결합되면서 근대주의적 인간관은 이성-기술-노동-시장-자본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 지점에 이르면 근대주의적 인간관은 사실상 문화명령이라는 유신론적 가치에서 완전히 탈피해 세속화되어 소비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프랜시스 쉐퍼가 지적하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갈라지는 지점이 인간관에서도 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물받은 창조성을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고,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동기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수행되는 노동과 근대주의의 자율적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변형시키는 노동이 겹쳐지다 분리되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파의 직업소명설과 칼뱅파의 노동윤리, 청교도들의 경제활동 등에서 예증되는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발전 사이의 관계가 해체되고, 노동 또한 이윤추구의 무제한적 긍정이라는 자율성 아래 놓이게 된다. 소외와 비인간화라는 자본주의의 악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종교개혁과 개신교가 결과적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는 비평에 정직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문화명령에 근거한 문화창조자로서의 기독교적 인간관과 노동력을 투입해 자연을 변형시키는 근대주의의 노동하는 인간관은 노동을 인간의 특성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과거에는 개신교에 자본주의의 종교적 정당화자라는 혐의를 두게 하고, 소외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비정한 비인간화에 대한 개신교의 책임을 묻게하는 근거가 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예측되면서 노동하는 인간을 인간됨의 핵심으로 놓는 근대주의적 인간관이 위기에 처하게 된 지금, 기독교 인간관은 어느 정도 위기를 근대주의와 공유하게될지라는 문제의식의 근거가 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불안감과 함께 인간관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촉발하며, 기독교에게도 이 시대적 질문에 응답할 소임이 주어진다.

인공지능의 위협적인 발달은 기술발전의 결과이며, 그 영향은 이성-기술-노동-시장-자본이라는 근대적 구조를 따라 파급된다. 근대적 인간관의 배경이 된 자율적 이성이 근대적 인간관의 결론인 노동하는 인간을 해체하고, 새로운 인간관의 방향과 소재를 묻게되는 것이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증거로 들며, 낙관론을 동반하며 고조되던 이성 중심의 인간관이 이성에서 도출되는 문제해결능력을 뜻하는 지능이 기술에 의해 인공화되면서, 인공지능의 폭주하는 발전 앞에서 이제 이성이 과연 인간관의 핵심일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유산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근대주의의 강조점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형상이나 창조성을 이성과 이성에 근거한 문제해결능력인 지능 위주로 해석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인간관에 질게 깔린 주지주의적 혹은 주의주의적 경향은 사실상 근대주의의 이성중심적 인간관에 편승한 것은 아닌가하는 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을 계승한 기독교 인간관이 근대주의와 병행된다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아브라함 카이퍼가 당대에 유행한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낭만주의적 경향을 띤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송인규, 『일반 은총과 문화적 산물』, 부흥과개혁사, 2012:112). 인공지능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이성중심적 인간관에 타격을 주고, 질문을 일으키는 시점에 기독교 인간관은 성경과 신조, 교리문답과 예배 안에서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를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참여와 겸손에 이어 3장에서 생명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세 번째 토대로 제안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노동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정의되었던 근대적 인간관이 도전받게 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기독교 인간관을 새롭게 강조할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의 종말로 근대주의와 자본주의의 인간관이

도전에 처한 지금, 새로운 인간관 논의에 참여하고, 복음선포의 일환으로 우리 시대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인간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됨이 인간의 노력이나 소산에 의해 정의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됨을 인간관의 핵심적 기초로 강조한 종교개혁의 유산,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흥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이 신적 공동체성에 근거해 타자성을 인정, 수용,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 20세기 삼위일체론의 유산에 더하여 이제 성령론의 재조명과 이에서 도출되는 성령론적 생명론의 결과들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성령론적 생명론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인간들간의 타자성 극복과 다양성 긍정의 모범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만물의 공동 번영flourishing까지를 논의범위로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에서 도출되는 신체성과 물질성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 성령론적 생명론에 포괄되며, 신체성과 물질성에 대한 강조는 그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문화명령에 대한 강조와 호응되면서, 문화명령의 동역주체를 모든 생명체들과 만물, 그리고 나아가 인공지능까지로 확대하면서 문화명령의 논의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몸문화연구소,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2022). 미로슬라브 볼프는 몰트만과 다른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의 유산을 계승하여 성부중심의 창조에 근거한 직업소명설에서 성령중심의 은사론으로 노동관의 중심을 이동시킨 성령론적 노동관을 제시한 데 이어(볼프, 『일과 성령』, IVP),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만물의 공동번영에 관한 기독교 생명관을 제시하였다(볼프, 『인간의 번영』, IVP). 근대적 인간관을 특징지었던 노동에 대한 성령론적 교정이 만물의 공동번영을 주제로 하는 생명론으로 이어지는 신학의 발달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구축과 완성의 개념 안에 만물의 번영에 대한 전망을 성령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구조가 다분히 성부와 성자에 치중한 이위일체적 경향을 띤 것은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독교 인간관을 새롭게 고찰하는데, 세계신학계 안에서 진행중인 성령론의 발전을 통합하는 것이 유익하다. 20세기 칼 바르트에 의해 촉발된 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 이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과 성령론적 기독교론이 강조되는 신학의 발전동향은 특히 몰트만과 보프와 볼프에게서 생명론으로 귀결된다. 삼위일체론에 이어 성령론, 성령론에 이어 생명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벨커에 이르면 성령론적 기독교론이 성령론적 인간론anthropology of the Spirit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미하엘 벨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 인간학』, PCK Books, 2022).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생명론적 질문이며, 기독교 인간관은 성령론적 생명관을 토대로 이 질문에 인간론적 답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생명론에

근거한 인간관은 인간관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의 존재의미까지를 포괄할 가능성이 있다. 근대주의가 이성과 지능,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주의를 내세운 결과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며, 문명의 전환이 논의되는 시점에 계시와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탈인간중심적 인간관의 모색이 필요하다. 탈인간중심적 기독교 인간관의 모색은 철학적 유물론이나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철학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독교 생명론은 본질적으로 성령론에 의지한다. 성령님을 생명이해의 중심요점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생명론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이 life-giver로 고백하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부신학은 창조를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주역이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가 생명이다.

히브리성경-구약성경에서 성령님은 생명의 창조자로 드러난다(이사야 32:15~17, 이사야 40:17, 시편 33:6) 특별히 이사야 32:15~17에서 성령님은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으로 드러난다. 성령론은 생명론과 직결되고, 이것은 상호인정과 연대, 서로에게 참여함 등을 내용으로 성령론적 인간관의 근거가 된다. 특별히 민중신학적 조직신학자 권진관은 성령론에 근거한 연대와 상생의 인간관의 덕으로 유연성, 수동성, 다양성, 평등성, 조화, 겸손, 봉사, 창조, 느낌 등을 성령의 성품으로 제시한다(권진관, 『성령, 민중의 생명』, 나눔사, 2004:300)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설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이사야서 32:15~17)

희랍어로 영을 뜻하는 프뉴마(pneuma)는 불과 공기의 결합체로 만물에 생기를 주는 것이라는 순전히 물질적인 개념이었다(테오 코부쉬,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교부들의 내적 인간에 대한 사유』, 가톨릭출판사, 2020:22). 로마-라틴 문화권에서 영을 의미하는 스피리투스 spiritus는 주변을 지배, 통제하는 힘을 뜻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은 생명과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기존의 영 개념을 복음화하였다. 힘과 통제에서 생명과 인격으로 영이라는 개념의 해석적 강조점이 옮겨간 것이다. 힘과 통제와 연결되는 카리스마는 위계와 권위, 권력으로 자연스레 이어지지만, 성령론에서 나오는 기독교 은사론은 권위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 다른 은사들 중의 하나로 위치시킨다. 은사론은 인간과 사회를 서로에게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정의하게 하며, 생명들을 향한 지배가 아닌 봉사로 삶을 확장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목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남을 지배하는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시며, 자기 밖의 인간과 만물들을 위한 정열을 주시고, 생명들의 번영을 위한 존재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성령론적 인간관은 본회퍼가 말했던 남을 위한 존재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위한 존재로 확장된 개념이다. 성령님은 생명의 번성을 위한 도구로 은사를 주시며, 인간의 노동은 은사론에 근거해 기독교적으로 정의된다. 성령론적 기독교 인간관은 생명의 번성을 위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존재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이 생명을 지향하는 성령론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은 개별국가들을 능가하는 지구적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시장화가 진행되어 인간의 소외 뿐 아니라 인간과 문명, 생명들의 존립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인공지능의 광속적 발달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의 CEO들이 오히려 인공지능 개발속도의 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의회에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천문학적 액수의 인공지능 시장을 향하는 투자광풍 속에서 약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실제 인공지능 개발과 상품화 과정에서 투자자와 경영자, 개발자들 외에 인공지능과 실제로 대화하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디지털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학습자들의 지위진 존재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술,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숨쉬는 책공장). 인공지능의 발달과 상품화 속에서 새롭게 구성될 디지털 자본주의 아래서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당하게 되는 약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시급하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으신 성령님(로마서 8:22~23), 생명의 근원이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사야서 61:1~2)에 대한 강조 속에서 구성되는 기독교 인간관이 인공지능 시대에 절실한 이유이다. 인공지능을 상품화하게 되는 디지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자본은 더욱더 커진 거대권력으로 시민사회 내의 비판세력 영역들을 제압, 점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노조, 종교, 비정부기구, 환경-여성운동그룹 등이

그 대상이다. 권진관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장 혹은 자본의 확장 앞에서 성령론은 더 큰 생명과 더 큰 인간성, 다양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성령론은 주장한다(권진관, 『성령, 민중의 생명』, 나눔사, 2004:253, 258).

성령론에 근거한 생명론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인간관은 다음의 네 가지 강조점을 갖는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위치, 두 번째는 성령론적 기독교론이 성령님을 매개로 성령론적 인간론으로 귀결되는 그리스도 중심성, 세 번째는 만물의 번영을 위한 인간의 탈자기중심성, 네 번째는 인간성의 근본적 본질로서의 영성의 중심적 위치가 그것이다.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에 근거한 생명론적 기독교 인간관은 근대주의가 하나님과 동료 피조물들로부터 빼앗아 근대적 인간에게 부여한 비성경적 인간중심성을 다시 하나님과 동료 피조물에게 돌리고, 또 인간관 논의에서 배제하거나 약화시킨 영성의 인간관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인간이해에 돌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지능, 이성, 기술,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산업화의 결과를 독점하게 된 자본주의적 소비능력으로 구성된 근대적 인간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성령론적 생명론에 근거한 기독교 인간론을 믿음과 삶으로 제시해야 한다. 생명론에 근거한 인간론은 소비나 소유, 효율과 속도, 능력과 크기와 수를 숭배하는 소비주의적 인간론을 비판한다는 이웃 종교와 철학전통들의 지혜와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토론하며, 때로는 진리성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 성령론에서 도출되는 생명론에 근거한 기독교 인간관은 성경계시와 교리, 삼위일체론, 기독교론, 성령론에 근거한 참여와 겸손을 통한 생명이해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동양명상종교들의 범신론적 일원론들과 확연하게 다른 인간 인격의 고유성에 관한 인간론적 차별성을 갖는다.

더불어 삼위일체적 성령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론으로 구성되는 생명론적 인간론은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하는 행위인 지복직관-관상이라는 영성적, 수덕적 강조점을 예배와 경건, 삶과 일에 부여하게 된다. 지복직관은 인간과 생태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도출해내는 토대로서의 신적 참여를 의미하며,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격적 참여를 의미하는 관상이란 강조점은 기독교적 현실참여와 기독교 공동체 이해, 기독교 사회관에 수덕적이고 영성적인 토대를 확고히 제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과 생태는 생명의 절멸 위기에 처해있고, 그 원인은 근대주의의 무연고적 자아가 존재의 근거를 이성, 자연을 개발하는 노동과 기술, 과학, 그 결과인 소유에서 찾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에고에서 에코로"라는 생태주의적 구호의 진정한 근거는 성경계시와 복음, 전통적 교리에 근거한 생명론적 인간론의 자아이해에서 나온다.



## 결론

인공지능의 발달은 진행중이며, 그 철학적, 신학적, 세계관적 영향이 어떻게 파급될지는 잠정적이다. 다만 그 영향력이 산업구조와 사회구조 뿐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적, 사상적 파급효과까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안 안에서 불가피한 인공지능의 발달이 일으키는 불안을 떨치고, 개방적이고 건강한 기도와 연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세계관적 사명으로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탈근대이면서도 후기근대를 사유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연계되어 인공지능이 생산구조와 연계되어 일으키고 있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에 못지않은 사상적 파급효과를 내리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시국에 참여와 겸손, 생명이라는 세 주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인간관의 존재론적, 수덕적, 신론적 토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